



최훈식 장수군수,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선출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7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최훈식 장수군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훈식 이사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기관과 지역사회, 학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단이 이들을 끈끈하게 엮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망을 키우는 미래 교육은 민생기 주요 균형 방침 중 하나"라며 "장수군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및 교육사업을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9개 분야 장학사업과 더불어 장수형 인재육성, 중·고교 학당 운영, 개별학교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부모가정 자립기반 조성

전주완산로타리클럽, 네일아트 직업능력 개발 교육 수료식



국제로타리 3670 지구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강신석)은 지난 6일 중화산동 산너머복지관에서 글로벌보조금(GG2118681) 사업으로 2021년 5월부터 시작된 1년 여 진행해온 취업준비 한부모가정 네일아트 교육을 마치는 수료식을 가졌다.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은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산너머복지관 및 노블리스 뷰티아카데미와 협업하여

저소득층 다문화 이주여성 3명과 한 국인 한부모가정 6 명에게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네일아트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도움이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 /김재훈기자



농협은행 전북, '2021 연도매프시타' 시상식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7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1 연도매프시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북 출신의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수경 부행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응대, 마케팅 능력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된 6명의 연도매프시타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 농협은행 '연도매프시타'는 친절한 고객응대와 적극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최고의 고객응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전북본부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매프시타를 매년 배출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수경 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과 함께 고객중심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고객권익 신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시내면, 키즈들 미래도움 프로젝트

남원시 시내면은 7월 산내초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산내초 키즈들! 드림멘토와 미래를 알다' 라는 주제로 직업 및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은 산내초 강당에서 면 마을복지계획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와 함께 산내면 마을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지리산의 유래와 반달곰 이야기, 국립공원 직업 레인저, 산행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 지리적환경 등 캠프가 열악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 김관영 도지사 참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 쌀(米)을 쪄면 팔십팔(八十八)로 볍씨를 뿌리고 밥이 되어 사람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의 손을 88번 거친다는 의미로, 도내 기관장 88명의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6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공급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80kg 기준 18만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하락해 급전도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은 쌀 산업기반 유지와 농업소득 지지를 위해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비롯해 '법도민 대상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쌀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릴레이 챌린지에 1호로 참여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55.8g으로 공깃밥 한 그릇 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도민 178만 명이 하루에 밥 두 그릇을 소비시 일 8800kg의 소비촉진 효과가 있으니 하루 두 끼 밥심으로 건강도 지키고 농업인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 백산면 지사협, 사랑 담긴 옥수수 수확 작업

김제시 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태우, 민간위원장 이재형)는 7월 7일 위원들과 봉사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산면 상정리 소재 1.600㎡의 밭에서 '사랑의 옥수수 나눔' 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24명의 백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들은 농번기로 인해 봉사활동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포트 작업부터 이식과 거름주기, 제조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노력의 결실이다 7월 태양 아래 옥수수가 알차게 여물어 수확하는 지사협 위원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재형 민간위원장은 "백산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하반기 협의체의 다양한 사업에도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우 백산면장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어려운 이 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옥수수 수확에 동참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 동향면 주민자치위, 주민과 함께 문화행사

진안군 동향면은 동향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7일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영화상영 행사를 열었다. 이번 문화행사는 무더위와 농업으로 지친 주민들의 피로감을 시원하게 극복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렸으며 영화 '세자매'가 무료로 상영됐다. 상영회에는 주민 80여명이 모여 관람하는 등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심음보 주민자치위원장은 "농사일에 바빠 서로 얼굴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함께 모여 영화관람을 하니 반갑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형배 신임 북전주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북전주로타리클럽 제26대 박형배 회장이 지난 5일 전주 그랜드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승일 총재와 이진희 차차기 총재, 김두식 이임 회장과 각 클럽 회장 총무, 클럽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박형배 회장은 "로타리클럽의 존립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교를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북전주로타리클럽이 '초야의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클럽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1년 팬데믹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신 김두식 회장께 감사드리고, 모든 회원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 진봉면 바사모, 새만금 바람길 환경 정비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바사모(새만금바람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관으로 새만금바람길 제초작업 및 쓰레기 줍기 등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 활동은 진봉면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만금 바람길을 선물하고자 회원들이 힘을 모아 나선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봉행에 방해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고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자 바람길이 금세 깔끔해졌다. 김두환 회장은 "새만금 바람길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사계절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작년 12월 '새만금 바람길 걷는 달 지정 및 2022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새만금 바람길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해 왔다"며, "지평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둘레길로 사랑받는 새만금 바람길이 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연탄은행, 소외계층 위한 도시락 200개 기탁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7일 삼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200개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도시락은 관내의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그룹홈 등에 전달됐다. 도시락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따뜻한 도시락을 통해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탄은행은 연탄나눔 뿐만 아니라 집수리 및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있고, 지난 2015년부터 무료급식을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도시락 200개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가정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빈곤과 고통과 사회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연탄나눔 및 무료급식을 통해 우리사회에 나눔과 행복을 전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동현교회, 인후2동에 감자 50 BOX 기탁

전주동현교회(목사 이진호)는 7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주민센터(동장 이진숙)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감자 50 BOX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감자는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독거 어르신의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동현교회에서 직접 구매했다. 이진호 전주동현교회 목사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본사내방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이정민 전북도의회 제1부위원장



김제 교월동지사협, 폭염·해충 대비 여름용품 지원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종욱)는 7일 지역내 저소득 50세대를 선정해 '폭염·해충 대비 여름용품 지원 사업' 행사를 펼쳤다. 이번 사업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철 병방 취약 가구인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세대에 폭염 대비 선풍기와 모기 퇴치 필수품인 전자모기향을 전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사협 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선풍기의 경우 조립 전 상태로 박스 포장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직접 조립할 수 없는 점을 우려해 위원들이 직접 조립하여 전달해 드리고 전자모기향 사용 방법 또한 안내해 드리며 평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봉사무스에 바로 연락할 것을 당부드렸다. 조종욱 위원장은 "더위와 추위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께 선풍기와 전자모기향을 전달해 드려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심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